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새 교우 등록

김 병규 형제

주소 : 70 Croton Ave. 2K, Ossining, NY 10562

전화 : (914) 602-8304

- 전교인 수련회

주제 :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본문 : 시편 133 편

일시 : 2017. 9. 9 ~ 10 (토~주)

장소 : Honor's Haven Resort, Ellenville, NY

2017년 8월 안내: 신 미라 권사

다음 주 기도: 최 성국 집사 / 시편 138

이번 주 친교: 김 현정 권사 / 이 영순 권사

다음 주 친교: 하 영미 집사 / 김 경숙 집사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민영 목사 914.874.3606(C) mylee4x@gmail.com

예배/지휘 전도사: 이상민/중고등부 전도사:Edwin Kim

유년부 간사: 안정자/반주자: 윤미경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주일에배순서

2017년 8월 20일

인도: 이 민영 목사

- *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함께
 “다 찬양하여라”
- *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 찬송 (Hymn) 20 장(통 41 장) 다함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 대표기도(Invocation) 시편(Psalms) 133 편 최 경자 집사
- 찬양(Choir) “본향을 향하네” 세광찬양대
- 봉헌기도 인도자
- 성경봉독(Scripture Reading) 신(Deut) 8:1~6 인도자
- 설교 (Sermon) “광야에서” 이 민영 목사
- *찬송 (Hymn) 325 장(통 359 장) 다함께
 “예수가 함께 계시니”
- * 축도 (Benediction) 이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필리핀), 최문재(혼두라스)

2017. 8. 6. 주일 설교 요약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출 33:1-3; 12-23; 34:5-6; 요 1:1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약속대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단지 같이 가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용돈만 주고 간섭은 하지 않는 아버지를 둔 절없는 자식처럼 좋아할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떠났다면 역사 속에서 정복하고 승리를 거둔 수많은 민족중 하나로 사라졌을 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만 구하고 그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 앞에 행하며 그를 닮아가고 순종하는 거룩을 잃는다면 세상의 수많은 단체 중의 하나로 사라져 갈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없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느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광야를 택하겠노라고 말합니다. 몇차례나 같이 거주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면 그는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길만 가르쳐주는 택시 운전사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황금송아지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기 위해 성막의 규례를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나 우리나 정성을 기울여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이 지켜왔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함께 한다고, 경배하며 즐겁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의 규례를 주고 계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약속대로 복을 줄테니 나는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축복이 아니라 진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에게 배우고 순종하며 닮아가는 정성은 없이 복을 받기만 바라고 있지는 않지요. 설사 그에게 구한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끔찍한 저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따르기가 어렵다고 내 눈에 보일만한, 내가 이해할만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기뻐하고 있지는 않지요?

모세는 몇차례나 하나님의 동행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증거는 복과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위틈을 마련하시고 그 영광으로 지나가시며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인자와 진리로 충만한 여호와와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율법을 돌판에 새기시고, 다시 성막의 규례를 주시고, 성막이 완성되도록, 모든 규례를 가르치도록 일년 동안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돌판에 새긴 율법보다, 일년 걸린 성막과 제사의 규례보다, 거룩한 제사장의 위임식보다 진실하고 참되게 하나님의 임재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살 수 있는 바위 틈이 되셨고, 진노에서 덮으신 은혜의 손이 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오해하고 잘못 구하고 심지어 우상을 만드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대하셨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인내가 변하지 않았습니. 한없이 자비로우셨고, 흥없이 거룩하셨으며, 완전히 진실하셨습니다. 지금도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대해주십니다.

예수를 묵상합시다. 사모합시다. 이 세상 전부를 가지시라, 나에게는 예수만 주시라던 찬송의 고백처럼 가장 좋은 것을 구합시다. 가장 좋으신 구주, 가장 귀하신 예수께서 함께 하는 가장 좋은 복을 주십니다.